

#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윤홍주,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Trajectories of Mothers' Daily Life Stress and its Association with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Growth Mixture Modeling

Hongju Yun,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년)부터 6차년도(2016년)의 1,039명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분석, 다집단 분석,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유형은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저수준 변화형 집단'의 세 개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은 6개년도 모두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서만 저수준 변화형 집단이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도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의 경우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이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changes of mothers' daily life stress over six yea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test its relationship with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For achieving this purpose, as the study sample 1,039 students were gathered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3rd grade of middle school,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ple Group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atent classes of mothers' daily life stres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high-stable trajectory, moderate-changing trajectory, and low-changing trajectory. Second, these three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s. Third,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 were no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while academic achievements we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aily life stress and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cial support to overcome daily life str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Daily Life Stress, Parental Neglect, Academic Achievement,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 논문은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October 23,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November 15,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많은 연구는 기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건강관계, 경제문제 등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심리적 건강[1-2]뿐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및 정서 조절 등의 특성[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가 결혼의 질, 결혼적응, 부모효능감, 탄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밝히고 있다[4-6]. 하지만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횡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이 양육과정 및 자녀 발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족시스템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의 특성은 자신의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이에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다집단 분석에 기초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변화 패턴 및 학업성취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낮은 반응 및 요구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 방임적 양육태도[8 재인용]는 자녀의 학습태도, 학업성적,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학교적응, 우울,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역할만족도,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13-15], 특히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방임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에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또한 방임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이다[17]. 많은 선행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비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19].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20-21].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지원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22],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을 때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다른 특성 및 자녀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6개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간 관련성을 확인한 많은 연구들이 비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에 기초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학업성취 간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가 집단 전체의 특성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패턴에 기초한 잠재계층별로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패턴을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확인된 잠재계층별로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개

년도[1차년도(2011년)~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종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23],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1,039 쌍 자료를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부터 6차년도(2016)의 6개 년도에 동일한 각 8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아주 많이 그렇다(4점)'의 선택지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등의 자녀, 남편, 친구,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0$ , 2차  $\alpha=.89$ , 3차  $\alpha=.89$ , 4차  $\alpha=.89$ , 5차  $\alpha=.89$ , 6차  $\alpha=.89$ 로 확인되었다.

### 2.2.2 방임적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 5문항, 2차년도(2012)부터 6차년도(2016)까지 7문항의 동일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선택지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79$ , 2차  $\alpha=.77$ , 3차  $\alpha=.76$ , 4차  $\alpha=.79$ , 5차  $\alpha=.81$ , 6차  $\alpha=.81$ 로 확인되었다.

### 2.2.3 학업성취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를 확인하였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점수는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을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로 보고한 결과이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75$ , 2차  $\alpha=.74$ , 3차  $\alpha=.79$ , 4차  $\alpha=.80$ , 5차  $\alpha=.79$ , 6차  $\alpha=.79$ 로 확인되었다.

##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료 활동 승인을 받은 후 6개년도[1차년도(2011년)~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plus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스트레스, 방임적 양육태도, 학업성취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6년 동안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변화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 비교를 통해 변화 추정의 최적모형을 선택한 후,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24 재인용]. 셋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된 잠재계층별로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에 기초한 성장혼합모형 방법을 사용하였다[25].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21명(2.0%), 30대 432명(41.6%), 40대 557명(53.6%), 50대 이상 29명(2.8%)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99명(9.5%), 고졸 500명(48.1%), 대학(2~3년제 졸업) 278명(26.8%), 대학교(4년제 졸업) 155명(14.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7명(.7%)이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70명(6.7%), 중국(조선족) 184명(17.7%), 베트남 31명(3.0%), 필리핀 258명(24.8%), 일본 409명(39.4%), 태국 38명(3.7%), 기타 49명(4.7%)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513명(49.4%), 여자 526명(50.6%)이며, 연령은 9세 78명(7.5%), 10세 926명(89.1%), 11세 31명(3.0%), 12세 4명(.4%)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39)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0-29	21	2.0
	30-39	432	41.6
	40-49	557	53.6
	<50	29	2.8
Mo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d	99	9.5
	High school graduated	500	48.1
	College graduated	278	26.8
	University graduated	155	14.9
	Graduated school graduated	7	.7
Mother's nationality	China(Han Chinese)	70	6.7
	China (Korean-Chinese)	184	17.7
	Vietnam	31	3.0
	Philippine	258	24.8
	Japan	409	39.4
	Thailand	38	3.7
	etc.	49	4.7
Child's gender	Male	513	49.4
	Female	526	50.6
Child's age (yr)	9	78	7.5
	10	926	89.1
	11	31	3.0
	12	4	.4

### 3.2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특성 검증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최적의 변화 추세를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linear) 모형, 2

차 함수(quadratic)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chi^2$ , CFI, TLI, RMSEA, SRMR을 고려했을 때, 2차 함수(quadratic)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선형의 2차 함수에 기초한 성장혼합 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Table 3 및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의 형태 및 특징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1은 분석대상 중 157명(15.1%)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631(p<.001), 선형변화율 .022(p>.05), 2차변화율 -.001(p>.05)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1은 초기값부터 가장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면서 6차 시점까지 변화없이 가장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2는 분석대상 중 385명(37.1%)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160(p<.001), 선형변화율 -.159(p<.001), 2차변화율 .027(p<.001)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2는 초기값부터 계속적으로 중간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변화형 집단'으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chi^2$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151.875***	19	.938	.951	.082 (.070-.094)	.063	1.836***		
Linear	102.693***	16	.959	.962	.072 (.059-.086)	.052	1.850***	-.005	
Nonlinear	44.398***	12	.985	.981	.051 (.035-.067)	.029	1.927***	-.096***	.017***

\* p<.05, \*\* p<.01, \*\*\* p<.001

Table 3. Fit Indices for 1- to 5-class growth mixture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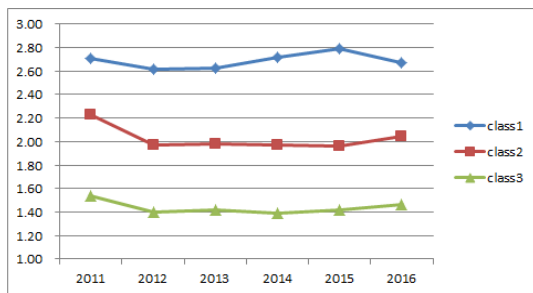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Posterior probabilities				
							1	2	3	4	5
1	12485.627	12530.141	12501.556	N/A	N/A	N/A	1.00				
2	10751.767	10816.065	10774.776	.853	.0000	.0000	.94	.96			
3	10382.311	10466.393	10412.399	.785	.0000	.0000	.91	.87	.92		
4	10308.227	10412.093	10345.394	.773	.4328	.0000	.89	.91	.83	.86	
5	10230.130	10353.781	10274.377	.765	.1074	.0000	.87	.80	.75	.84	.90

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3은 분석대상 중 497명(47.8%)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1.520( $p < .001$ ), 선형변화율  $-.085(p < .001)$ , 2차변화율  $.015(p < .001)$ 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2는 초기값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Class proportions for the five profile solution(%)

Model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100				
2	29.3	70.7			
3	15.1	37.1	47.8		
4	4.0	42.3	37.2	16.5	
5	3.8	32.6	6.8	15.4	41.4



※ Class 1: High-stable trajectory, Class 2: Moderate-changing trajectory, Class 3: Low-changing trajectory

Fig. 1. Profile plot of latent classes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Quadratic
1	2.631***(.065)	.022(.053)	-.001(.009)
2	2.160***(.061)	-.159***(.029)	.027***(.005)
3	1.520***(.028)	-.085***(.018)	.015***(.003)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잠재계층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도, 학업성취 평균 차이 비교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패턴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2016년)까지 6차년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를 활용한 사후 분석 결과, 6차년도 모두에서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학업성취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를 활용한 사후 분석 결과, 중학교 1, 2, 3학년 시기 모두에서 저수준 변화형 집단이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4 잠재계층별 방임적 양육태도 및 자녀의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다집단 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25].

먼저, 방임적 양육태도의 평균 초기치는 3개 잠재계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저수준 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종단적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의 평균 초기치는 3개 잠재계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One-way ANOVA comparison of parental neglect and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F	Scheffé
Parental neglect	2011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95	.63	11.51***	2,3<1
		Class 2	385	1.76	.62		
		Class 3	497	1.69	.57		
	2012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2.05	.57	26.20***	3<2<1
		Class 2	385	1.89	.54		
		Class 3	497	1.72	.51		
	2013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97	.55	16.08***	2,3<1
		Class 2	385	1.77	.50		
		Class 3	497	1.70	.51		
	2014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9	.53	8.58***	2,3<1
		Class 2	385	1.75	.49		
		Class 3	497	1.70	.50		
	2015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6	.49	6.17**	2,3<1
		Class 2	385	1.73	.50		
		Class 3	497	1.70	.50		
	2016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4	.48	5.11**	2,3<1
		Class 2	385	1.72	.46		
		Class 3	497	1.70	.48		
Academic achievement	2011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4	.75	0.79	
		Class 2	385	3.41	.65		
		Class 3	497	3.42	.69		
	2012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5	.73	2.28	
		Class 2	385	3.36	.63		
		Class 3	497	3.45	.72		
	2013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5	.74	3.43*	
		Class 2	385	3.38	.68		
		Class 3	497	3.48	.73		
	2014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00	.73	5.44**	1<3
		Class 2	385	3.11	.68		
		Class 3	497	3.21	.75		
	2015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2.95	.72	6.60**	1<3
		Class 2	385	3.09	.71		
		Class 3	497	3.19	.76		
	2016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2.95	.76	3.69*	1<3
		Class 2	385	3.10	.75		
		Class 3	497	3.14	.75		

※ Class 1: High-stable trajectory, Class 2: Moderate-changing trajectory, Class 3: Low-changing trajectory  
 \* p<.05, \*\* p<.01, \*\*\* p<.001

Table 7. Multiple group analysis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Parental neglect	Intercept	2.006***	1.812***	1.701***
	Linear	-.016	-.005	.004
	Quadratic	-.004	-.003	-.001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3.388***	3.435***	3.449***
	Linear	-.093**	-.099***	-.026
	Quadratic	.000	.005	-.008*

\* p<.05, \*\* p<.01,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여 6년 동안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 세 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 집단은 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부터 6차 시점(중학교 3학년)까지 변화없이 가장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157명(15.1%)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집단은 1차년도부터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

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385명(37.1%)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집단은 1차년도부터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497명(47.8%)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의 특징은 첫째, 잠재계층 내 완만한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 잠재계층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이다. 즉,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6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반면,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6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낮은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 남편, 친구,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과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극적인 우리 사회의 정책적 지원 노력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2011년) 중학교 3학년 시기(2016년)까지 6개년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방임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16]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26], 본 연구는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또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요구된다.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평균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이 누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지지, 학교활동 참여 등의 부모의 교육관여가 학교생활적용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7-29],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중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는 3개 잠재계층집단 모두 종단적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업성취의 경우 3개 잠재계층집단 모두 종단적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녀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간 학업성취 차이의 상당 부분이 학교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기인하는데[18],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6개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일상생

할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양상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학업성취의 변화 추세는 모든 잠재계층에서 동일하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는 실재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발달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어떤 차별점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자기보고식 학업성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과 학업성취 간 보다 타당한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학업성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과 부정적 양육태도 중 하나인 방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어머니 및 자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일상스트레스에 따른 방임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D. M.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full time housewive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2, No.2, pp.113-131, 2014.
- [2] M.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4, pp.761-777, 2007.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7.12.4.006>
- [3] Y. J. Park, H. N. Song, "Effects of mothers daily hassles, cognitive regulation and emotive regulation on school read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8, No.1, pp.27-51, 2018.  
DOI: <https://doi.org/10.21213/kjcec.2018.18.1.27>
- [4] E. H. Lee, "Study on the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family stress: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4, No.1, pp.73-94, 2009.
- [5] H. S. Kim, H. J. Kim, J. H. Oh,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4, No.1, pp.27-51, 2011.
- [6] O. S. Cho, H. S. Bang,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4, pp.173-180,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173>
- [7] O. Erel, B. Burman,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No.1, pp.108-132, 199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108>
- [8] X. Bi, Y. Yang, H. Li, M. Wang, W. Zhang, K. Deater-Deckard, "Parenting styles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s of behavioral autonomy and parental authority", *Frontiers in Psychology*, Vol.9, Article ID 2187,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8.02187>
- [9] M. N. Kwon, S. A. Lim,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ing attitud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2, pp.143-161, 2017.  
DOI: <https://doi.org/10.35151/kvci.2017.25.2.007>
- [10] H. L. Yang, J. E. Lee, K. J. Han,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neglect on school grade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identity",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8, No.2, pp.41-62, 2014.  
DOI: <https://doi.org/10.33071/ssricb.38.2.201408.41>
- [11] H. J. An, "The longitudinal analysis about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adolescent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2, pp.475-493, 2016.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6.16.12.475>
- [12] N. M. Hong, H. J.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8, No.2, pp.125-151, 2017.
- [13] Y. S. Chang, Y. S. Cho, "Parenting attitude: The effects of a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4, pp.145-163, 2014.
- [14] E. M. Yeon, H. O. Yoon, H. S. Choi,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on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and parenting attitude:



-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2, pp.1-28, 2016.
- [15] E. J. Lee, S. G. Lee, “Parenting stresses and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in poor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neglect”, Social Welfare Review, Vol.14, pp.113-138, 2009.
- [16] J. Y. Kang, “Instrumental social support, material hardship, personal control and neglectful parent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5, pp.1366-1373, 2013.  
DOI: <http://dx.doi.org/10.1016/j.childyouth.2013.05.009>
- [17] S. M. Park, S. H. Kim, H. S. Park, “The learning competency facilitating factors of academically talented multi-cultural family’s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1, No.2, pp.121-148, 2013.  
DOI: <http://dx.doi.org/10.35151/kyci.2013.21.2.007>
- [18] S. B. Oh, S. S. Kim,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 Vol.38, No.2, pp.215-234, 2018.  
DOI: <http://dx.doi.org/10.25020/je.2018.38.2.215>
- [19] M. H. Park,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10, No.4, pp.27-54, 2017.  
DOI: <http://dx.doi.org/10.14328/MES.2017.12.31.27>
- [20] H. Y. Baek, “The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diated by parental depression and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Multi-group analysi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8, pp.47-74, 2017.
- [21] Y. J. Lee, B. Oh, K. B. Yoo, Y. D. Kwon, J. W. Noh, “Correl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 language-mathematical academic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571-1583, 2017.
- [22] C. W. Rhee, E. J. I,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impac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bond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9, pp.433-455, 2014.
- [23] <https://www.nypi.re.kr/archive>
- [24] E. M. Yeon, H. S. Choi, “Exploring the latent profile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ceptance toward disability of the disabled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133-152, 2019.
- [25] S. H. Baek, H. W. Chu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1, pp.151-182,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1.151>
- [26] S. A. Lee, H. J. Choi, “A research on child rearing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2, pp.133-155, 2016.
- [27] W. S. Le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to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Vol.14, pp.41-61, 2019.
- [28] H. L. Chang, R. H. Lee,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7, pp.189-218, 2019.
- [29] J. Y. Chung, Y. H. J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levels on the student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7, pp.73-93, 2015.

윤 흥 주(Hongju Yun)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교육정책평가, 교육재정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